

# 앙골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8.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 I. 일반개황

면적	1,247천km <sup>2</sup>	GDP	1,010 억 달러
인구	19.63 백만명	1인당 GDP	5,145 달러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Kwanza (Kz)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93.74

-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앙골라는 한반도의 5.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DR콩고, 콩고, 잠비아, 나미비아와 접경하고 있음.
- 1975년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 민족주의적 노선을 따르는 정부군과 친미를 주장하는 반군독립국민연합(UNITA)과의 갈등과 반목으로 2002년까지 27년 간의 장기 내전이 진행된 바 있음.
- 앙골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은 제2위 산유국로 석유산업이 앙골라의 GDP의 85%를 차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장기내전으로 인한 인프라 미비와 인적자원 부재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지속되는 고유가 및 비석유부문의 성장으로 2012년에 8%의 경제성장률 기록 전망

- 석유산업이 GDP의 85%, 재정수입의 75%, 총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은 국제 유가의 등락과 원유 생산·수출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2008년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신규 유전개발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12.5%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09년에 OPEC의 감산결정에 따라 원유 생산량이 180만 b/d로 감소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여 원유 수출 수입(收入)이 크게 축소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대폭 하락한 0.8%를 기록하였음.
  - 2010~11년에는 세계경기회복과 더불어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석유부문 외 농업, 건설업, 제조업 부문 등의 활성화로 경제성장률이 각각 3.4%를 기록하였음. 2012년에는 금, 인산염, 구리, 철 등 광물의 생산량 증대와 LNG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생산량 변동추이: 191만 b/d(2008) → 180만 b/d(2009) → 184만 b/d(2010) → 195만 b/d(2011)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sup>e</sup>	2012 <sup>f</sup>
경제성장률	12.5	0.8	3.4	3.4	8.0
재정수지/GDP	8.9	-4.9	6.8	12.2	11.1
소비자물가상승률	12.5	13.7	14.5	13.5	11.1

자료: IMF, EIU.

□ **고유가와 원유수출량 증대로 재정수지 흑자 기조**

- 재정수지는 2006~08년에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收入) 증가 등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에 원유 생산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적자 전환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4.9%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 세계경기회복과 더불어 오일머니 유입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6.8%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1년에도 고유가 및 원유 생산·수출량 증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가 12.2%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세는 지속되어 2012년에도 11.1%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오일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 따른 두 자릿 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화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일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를 상회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식료품 가격 상승과 디젤 및 휘발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등이 물가상승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석유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적**

- 석유부문이 GDP의 85%, 재정수입의 75%, 총수출의 95%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락이 국가경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제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수입액 중 생필품 등의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함.

□ 오랜 내전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미흡하여 투자환경 열악

- 오랜 내전(1975~2002)으로 인해 사회기반 시설(도로, 항만 등)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내전 종료 이후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의 80%가 파괴되어 있으며, 철도운행 및 전력송전 또한 원활하지 못함.
- 통신 인프라도 취약하여 전체 인구 1,960만 명 중 유선전화 사용인구는 15만 명에 불과하며, 회선 연결 또한 열악한 상태임.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인구는 각각 800만 명, 200만 명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증가추세에 있음.
- 세계은행이 평가한 기업환경지표(Doing Business 2012)에 의하면, 앙골라는 총 183개국 중 172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국민 대다수가 절대 빈곤상태인데다 교육 인프라 미비로 인적자원 절대부족

- 유입되는 막대한 오일머니의 혜택은 일부 엘리트 계층만이 누리고 있어 앙골라 국민의 약 70%가 하루 2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 2011년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앙골라는 총 187개국 가운데 148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또한 장기 내전으로 인한 교육 인프라 미비로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앙골라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95억 배럴로 세계 18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에서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2위이며 연안 해저에서 신규 유전이 계속 발견되고 있음.
- 또한 앙골라는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연간 약 6억 5천만 달러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며, 세계 다이아몬드 총 생산량의 5~8%를 점유하고 있음.
- 주로 콩고민주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Lunda Norte와 Lunda-Sui 주에서 다이아몬드 생산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Malange, Ulge, Moxico, Cuyando, Cuando Cubango 주에서 탐사가 진행중임.

- 또한 금, 석탄, 구리, 천연가스, 철광석 등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대규모 액화천연가스 공장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완공될 경우 경제성장과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앙골라에서는 연안 및 콩고강 횡단 가스 수송망 건설 및 비수반 가스(non-associated gas) 개발 등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LNG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향후 수출용으로 연간 약 500만 톤의 LNG를 생산하며, 내수용으로 일 1억 2,500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임.

## 다. 정책성과

### □ 무역확대와 투자유치 증진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 정부는 사회인프라 건설, 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초복지증진을 위해 무역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대외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산토스(Santos)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지원, 통관 및 비자 등 절차 개선은 물론 각종 법규 및 제도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3. 대외거래

### □ 원유수출량 증대로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 2008년까지 상품수지는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호황으로 흑자기조를 지속하여 왔음.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05년 158억 달러에서 2008년에 429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음. 경상수지도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원유수출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10%를 기록하였음.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은 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로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되며 GDP 대비 9%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도 고유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339억 달러) 대비 36% 증가한 461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5.8%로 추정됨. 2012년에도 고유가와 원유 수출량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국내수요 증가와 투자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sup>e</sup>	2012 <sup>f</sup>
경 상 수 지	7,194	-7,572	7,421	15,916	17,112
경 상 수 지 / GDP	8.6	-10.0	9.0	15.8	13.9
상 품 수 지	42,932	18,168	33,928	46,051	49,659
수 출	63,914	40,828	50,595	65,801	71,977
수 입	20,982	22,660	16,667	19,750	22,318
외 환 보 유 액	17,869	13,664	19,750	27,008	34,627
총 외 채 잔 액	15,131	16,715	19,064	19,425	21,469
총 외 채 잔 액 / GDP	18.0	22.1	21.0	17.5	14.9
D S R	3.1	11.2	6.4	6.6	7.0

자료: IMF, EIU.

□ 원유수출에 따른 외화수입 증대로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 2009년에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원유수출량이 줄어들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국제유가의 회복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증가 추세에 있음. 2011년 말에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7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외채수준은 앙골라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정부는 2006년부터 고유가로 유입된 막대한 오일머니를 이용하여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에 총 23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하였음. 이 같은 정부의 상환노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2005년 38.6%에 달하던 GDP 대비 외채비중은 현재 20%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D.S.R.도 2010년부터는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내에 대외지급 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2012년 8월 총선에서 산토스(Santos) 대통령의 연임 성공이 예상되어 정치안정 지속될 전망

- 1979년부터 인민해방운동(MPLA)과 산토스(Santos) 대통령이 장기집권해오다 2008년 9월 총선에서도 압승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2010년 2월 헌법개정\*으로 2012년 8월 말에 예정된 총선까지 산토스 대통령의 집권이 지속될 예정임. 현 대통령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아래 안정적인 정국 운영과 더불어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2010년 2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선거가 폐지되고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됨.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인민해방운동(220석 중 191석 차지)의 당수로 재선출된 산투스 대통령이 대통령직위를 수행하게 된 것임.

- 8월 말에 있을 총선에서 제1야당인 UNITA에서는 Isaias Henriques Gola Samakuva가, 현 집권당인 MPLA에서는 Jose Eduardo dos Santos (현 대통령)가 각각 당수로 선출되었으며, 현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지난 선거에서 현 대통령이 80%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어 정치적 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부정부패 만연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부족

-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는 앙골라 정부의 재정운영의 투명성 미비를 지적하며 구조 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 이에 따라 현 앙골라 정부의 개혁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투명성을 제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정부의 정책일관성 부족과 부패 만연 등으로 인해 구조 개혁 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임.

- 2012년 1월에 IMF는 보고서를 통해 2007~10년 중 앙골라 정부지출 중 약 320억 달러의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앙골라의 투명성 순위는 145개국 중 133위를 기록하였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전후 복구사업과 난민문제 해결 등 사회안정 대책 미흡으로 사회불안요인 잠재

- 독립투쟁(1961~1975), 내전(1975~2002) 등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전쟁으로 인해 식민지 시대 구축되었던 모든 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국토가 황폐화된 상태임. 이에 따라 앙골라는 전후복구사업과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내전이 종료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귀국한 난민 110여만 명과 이재민 300여만 명에 대한 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내전기간 중 친미반군이 앙골라 전역에 6백만 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하였으며, UN의 광범위한 지뢰제거작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만 3천 여개의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됨. 지금까지 지뢰로 인한 사상자들이 약 2백만 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 3. 국제관계

### □ 미국과의 관계 강화 및 주변국과 양호한 관계 유지

- 미국과는 원유 공급을 매개로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이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은 물론 상업차관 제공을 통해 앙골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네만 연안을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과 국내 정치의 안정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역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군사강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역내 분쟁 해결에 일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프리카 역내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제 1위 교역국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 2003년 중국이 앙골라에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 및 크레딧 라인(credit line)을 설정한 이래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건설, 전력, 광업)들의 대 앙골라 진출 또한 활발함.

- 2012년 현재 앙골라는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며 내전이 종료된 이후 중국은 앙골라 정부가 사회인프라 건설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규모 차관을 제공함에 따라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앙골라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제1단계 사업으로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병원 건설 등 사회인프라 분야에 50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였고, 제2단계 사업으로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농업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추가 차관을 제공한 바 있음.

□ Cabinda 지역 자원 개발을 둘러싼 DR콩고와의 국경 분쟁 여전

- 앙골라와 DR콩고는 Cabinda 주변지역의 국경선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Cabinda offshore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자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상호를 비방하였음.
- 사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2009년 4월 Muzito DR콩고 총리가 앙골라를 방문하여 산토스(Santos)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경문제를 다룰 전문가 회의를 개최, 동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
- 그러나 해상경계문제 외에도 양국은 1,500마일 이상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DR콩고 측이 앙골라 군대가 북부 국경인접지역 DR콩고 영토에 불법으로 주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국경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

- 정부는 고유가에 기인한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을 이용하여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에 총 23억 달러(1989~2006년 사이 발생한 채무 연체)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외채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음.



<표 4> 한·앙골라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출	325,324	158,068	217,98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등
수입	118,155	114,383	2,529	LPG, 석유제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12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11건, 8,882천 달러

### V. 종합 의견

- 2009년에 세계경기 침체, 원유생산량 감소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증대로 3% 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12년에는 금, 인산염, 구리, 철 등 광물의 생산량 증대와 LNG 수출 증가에 힘입어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정치적으로는 내전 이후 1979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산토스(Santos)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2년 8월 말에 예정된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MPLA의 입승이 예상됨에 따라 정치 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총 외채잔액 대비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낮은 D.S.R 수준 (2011년 6.6%)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